

“문화재는 우리의 혼”

혜문 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중요성 강조



빠앗긴 문화재를 말한다
혜문 지음
작은솔
1만4000원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례》를 비롯해 해외 강탈 문화재 환수 운동에 앞장서 온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이 우리나라가 되찾아야 할 문화재에 대한 비밀을 밝힌 책 《빠앗긴 문화재를 말한다》를 최근 펴냈다.

책에는 저자가 지난 5년간 빠앗긴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던졌던 “우리는 왜 빠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했던 흔적을 3부로 나누어 담고 있다.

제1부 망각의 역사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명성황후를 질명시킨 칼이 아직도 신사에 기념물처럼 보관돼 있다는 사실, 일제 경찰이 만든 ‘조선 여성의 생식기 표본’이 최근까지도 국과수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들을 적고 있다.

제2부 한국의 그림자는 우리가 되찾은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문화재 환수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반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홀한 우리 인식을 살피고 있다. 1965년 직신과 막도장을 돌려받고 ‘문화재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미군 병사가 훔쳐간 문화재를 되돌려 받았지만 60년 동안 그 행방을 모르고 있었던 정부의 무능함, 《조선왕조실록》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대의 태도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3부 빠앗긴 문화재의 꿈은 앞으로 되찾아야 할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문화재들은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질곡의 역사를 증언할 ‘역사성’이 담긴 것들 중에서 엄선된 것들이다. 저자는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 구조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가 적고 있는 목록들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할 우리 문화재들이다.

저자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단순히 빠앗긴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 놓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조상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을 찾는 과정이자,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문화재는 교과서 속에서 외워야 할 지식이나 관광상품이 아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되뇌인다. “혼이 담긴 계란은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45명의 2막 인생이야기



안코르 내 인생
조선일보
안코르 내 인생팀
다솔
1만3500원

사회적인 뒷받침 없이 온전히 개인 문제로 귀착된다.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재앙이자 공포에 가깝다.

《안코르 내 인생》은 고단한 발발이로서의 첫 무대를 마치고 당당히 인생 두 번째 무대에 오른 45명 2막 인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 안의 45명은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흐릿한 웃음을, 때로는 깊은 감동을, 때로는 작은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고교 영어교사에서 보디빌더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웃음 짓게 만든다. 갑작스런 아내의 암선고에 잘 나갔던 대기업 건설사 임원을 마다하고 작은 공방에서 기타를 만드는 주인공의 가슴 울리는 이야기도 있다.

조동섭 기자

서재탐방 | 유필화 교수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

“경영인은 문사철 소양 겸비해야”

우리는 경영학에 대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 알고 있다. 어쩌면 인간과 만물의 가치를 강조하는 불교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접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59)는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히는 삶의 현장인 기업경영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자리아타(自利利他), 수처작주(隨處作主) 등 불교적 사상이 현대 기업의 고객만족과 비전제시, 주인의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경영 원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로서 유 교수는 1997년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펴내 21세기 경영이념을 인간중심의 전통 불교정신 속에서 찾고자 했다.

유필화 교수는 기업경영 본질을 고객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활동에서 찾는다. 때문에 그는 “경영인은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인문학 서적을 읽음으로써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연구소에는 유필화 교수가 강조하는 문사철 지혜의 보고가 가득했다.

부인 이기향 교수(한성대 예술대학원 대학원장·의류패션산업전공)가 꾸민 연구소는 그리스와 석굴암 양식이 한데 어우러져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유 교수의 서재는 2층에 있었다. 서재에는 불교서적, 서양철학서, 각종 문학서 등 3000여 권이 소장돼 있었다. 북한에서 편찬한 《한글판대장경》과 독일 빌레펠트대학 초빙교수 시절 배운 독일어로 읽기 시작한 독일 역사·철학서, 《토지》 《흔들》 《태백산맥》 염상섭의 《삼대》 등이 눈에 띄었다.

유필화 교수는 정독형 독서자이다. 책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필요한 책만 골라서 읽는다.

“현재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일본어 원서로 읽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아주 잘 쓴 책이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데 훌륭한 저서입니다.”

역사서를 좋아하는 유 교수는 《삼국지》와 《열국지》를 훌륭한 경영전략과 리더십의 교과서로 손꼽았다.

유 교수는 “서양을 이해하려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이해해야 하고 동양을 이해하려면 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삼국유사》를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삼국유사》는 다른 역사서에는 보기 어려운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신화·설화와 방대한 양의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일연 스님이 발로 뛰면서 작업한 《삼국유사》를 통해 당시 삼국의 지도층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입니다.”

한국문학 중에는 벼조 흥명희(1888~1968)의 《임격정》을 추천했다. 배경 출신 도적 임격정의 활약을 통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린 대하역사소설이다. 유 교수는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나 문장의 솜씨 및 비유가 탁월하다”며 “기업경영인이 이 책을 읽는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정독형 독서가 유필화 교수. 저술과 강연을 통한 포교가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 기업경영에 사상기반 제공
선불교 지혜 경영학에 접목한 책 집필 계획
‘삼국유사’ 등 추천... ‘로마인 이야기’ 읽는 중

유필화 교수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불자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적부터 불교와 친숙했다. 중학교 시절 도서관 청담 스님과 보문사 정진 스님을 친견하기도 했다.

1972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MBA를,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로라 하는 국내·외의 명문대학을 단 한 번의 늦춤도 없이 직진상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유필화 교수는 1981~1986년 하버드대 유학시절 한국 사찰에 다니면서 불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 불교와 경영을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귀국 후 그는 평소 존경해오던 원효·일타·법정 스님의 저서들 중 웬만한 것은 다 읽었다. 사찰 주지스님, 고위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불교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강연도 진행했다. 저술과 강연을 통한 포교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다.

마케팅과 경영학 서적의 저술 외에도 평소 문학에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습작을 해온 유 교수는 2006년에는 사랑과 참나[眞我], 세계관 등을 진솔하게 담아낸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도 펴냈다.

유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 경영학서 두 권을 펴낸 뒤 2013년부터는 인문학, 불교와 경영을 접목한 책을 집필할 계획이다. 특히 선시를 즐겨 읽는다는 그는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선시에 녹아있는 지혜를 경영학을 통해 현대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사들의 어록을 수집하고 있다.

한국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불교적 덕목이 무엇인지 유 교수에게 묻자 그가 늘 강조해오던 것들이 대답으로 돌아왔다.

“삼성·현대·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이제 예전과 달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경제적 부(富)를 따지자면 근본적으로 고마워할 일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인들 스스로가 공인(公認)을 갖고 깊은 경영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유 교수는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하는 상대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것이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불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마인드가 약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을 쉽게 해고하죠. 우리나라 지식층의 8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광복 후 엘리트 층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반면 일반 국민 대부분이 불자이다 보니 불교 경영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초대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성장에 있는 경영자가 나올 수 있던 것도 바로 불교덕분이죠.”

유 교수는 불자들에게 “본인이 불자라는 것을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홍보해 달라”며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탕화, 건축 등 불교를 토대로 한 문화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불교공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글=이어나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애펜터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젊은 날의 깨달음	해민	클리어마인드
7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8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히 외	운주사
9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10	무문관 참구	장휘욱, 김사업	민족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자들을 위한 품격 있는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외형은 콘사이스, 내용은 대백과사전!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불교사전
불교의 모든 지식이 한 권의 사전 속에 들어 있다

부선불교대학교 명예교수 김승동 편
1,216쪽 | 4,950여 항목 수록 | 38,000원 | 고급양장 특수제본

사회적 현장을 떠난 불교,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7년만에 탈고한 학술서!
수십 년 동안 젊은 불교운동에 앞장선 김재영 법사님의 신간
초기불교의 역사적인 전법 개척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해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의 역동적 에너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 책에 들어 있다.

김재영 | 488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신아트빌딩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운재승) **민족사**

자현스님의 부교, 무문화로 읽는다

글·자현스님
400쪽 | 13,000원
150×210mm

맨발로 법당에 들어가면 어때!
승려도 고기 먹는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자현스님의 유별난 불교 이야기가 시작된다

간화선 수행의 교과서, 무문관 무문관 참구

10년 전, 두 사람은 수행을 위해 잘나가던 동국대학교 강단을 떠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갔다.
...
번쩍, 풍뎉기가 날아오고 물결에 담긴 물이 꿈꿨던 정도로 추운 선방에서 화두를 푼다.

장휘욱, 김사업 | 416쪽 | 22,000원 | 175×230mm 양장